

로빈 쿡 소설 속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에 대한 고찰

김 용 순* · 박 언 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사회집단은 그 사회의 공동목표의 달성과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과 지지의 반응을 보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과 비난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것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행동 양식을 관습이라고 한다. 관습은 오랜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형태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윤리 또는 도덕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것이다.

작금은 삶의 과정이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어 윤리나 가치관에 혼동이 생기기 쉬운 때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는 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환자들이 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의료대상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고 진료 중 문제가 의료분쟁으로까지 발전하여 가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진료외적인 문제로 진료과정 중의 의료인의 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의 문제, 의료진의 일관성 있는 언행 부족 등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로빈 쿡¹⁾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내용 분석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 아주대학교 의료원 OT팀

1) 로빈 쿡(Robin Cook)은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의학박사이며 작가로, 현대의학윤리를 질문하는 소설들을 의욕적으로 쓰고 있다. "탄탄한 구성의 의학스릴러"로 뉴욕 타임즈로부터 격찬을 받은 코마(Coma)는 미스터리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연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Vital Sign*, *Blindsight*, *Mind Bend*, *Fever*, *Brain* 등의 작품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중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둘째, 이를 생명의료윤리의 네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로빈 쿡의 소설로, 이는 의사 신분인 작가가 의료인 내부의 윤리적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소설이다. 본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브레인(Brain)』, 『메스(Mind Bend)』, 『코마(Coma)』 세 가지를 선택하여 거기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를 분석하고 개념화하였다.

『브레인』은 1995년에 발간된 책으로 어느 대학병원에서 수술 도중 젊고 아름다운 여성 환자들의 뇌가 없어져 버리는 사건을 다룬 내용이며, 『메스』(1994)는 대규모 제약회사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여기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것이고, 『코마』(1992)는 간단한 수술을 하려고 입원한 건장한 젊은이들이 죽어 가는데 이것이 장기매매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다룬 소설이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Taylor와 Bogdan²⁾과 김경동과 이은숙³⁾의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과정은 소설책 전체를 읽으면서 드러나는 주제(emerging theme)를 기록하고 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영역화하였다.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의미를 확인한다.

2단계 : 자료에 나타난 주요한 의미 있는 문장을 선별한다. 이는 연구현상과 직접 관련된 구, 절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3단계 : 선별된 문장에서 윤리적 행위가 드러나는 주제를 찾고 이를 개념화(formulating meaning)한다. 이 단계는 작가가 말한 것이 무엇이며 실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과정이다.

4단계 : 개념화된 일반적인 문장의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찾아 관련되는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다(categorize and grouping).

2) Taylor SJ & Bogdan R.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 : The Search for mean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7

3) 김경동, 이은숙. 사회조사 연구방법. 서울 : 박영사, 1986

이 방법에 따라 분류한 절차는 첫째, 세권의 책을 반복해 읽으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확인하고, 둘째, 연구자가 윤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선별하였다. 셋째, 선별된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각 문장이 의미하는 윤리적 행위를 기술하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개념형성의 단계를 거쳤다. 넷째, 이런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의 단계를 거쳤다. 여기서는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인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의 원칙, 악행배제(nonmaleficence)의 원칙, 선행(beneficence)의 원칙, 정의(justice)의 원칙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소설에서 뽑은 문장으로부터 윤리적 행위의 의미를 찾고 이로부터 나온 개념을 윤리학자 1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자료의 결과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설 속에 나타난 실례를 직접 인용하여 수록하였고, 인용구에 나타난 의미를 기록(고딕체)하였다.

연구결과

『브레인』, 『메스』, 『코마』 세 권의 소설을 읽고 의미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윤리적 행위를 기술하고 이를 개념화한 결과, 33개의 윤리적 행위를 선별할 수 있었고(표 4) 여기에서 12개의 개념을 도출하고 윤리원칙에 따라 네 부분으로 영역화하였다(표 5).

1.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1) 소설 브레인(Brain)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소설 브레인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부터 볼 수 있는 윤리적 행위는 “병원에 오는 환자는 인격적 존중을 기대한다”,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나 관심 없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의료인은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등 13개로 나타났다(표 1).

다음은 소설 브레인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의 예 일부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할 때는 진료기록 사본을 떼어 갈 권리가 있다고 아는데요.” 캐더린은 말을 마친 후에 흐르는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아니 불안했다.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로빈 쿡(박민 옮김). 브레인. 서울 : 도서출판 열림원, 1995 : 27

박박 밀어버린 그녀의 머리 오른쪽에 말굽 모양의 상처가 정교한 솜씨로 꿰매져 있었다. 수술 후 닦았는지 핏자국은 없었다. 그녀가 수술 도중 사망한 게 아니라 수술이 끝난 후 죽은 것이라고 발뺌하기 위해 매너하임이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⁵⁾

진료의 정직성이 배제되고 환자 중심이 아닌 의료인 중심의 방어적인 진료행위로 의료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된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두 명의 의사를 여기에 데려와 나까지 세 명이 보는 앞에서 아스피린이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킨스는 스스로 한 농담이 몹시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전혀 웃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진찰을 받기 위해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일어나 돌아가서는 안될 것 같았다.⁶⁾

환자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나 충분한 이해와 설명 없이 환자의 요구와 가치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다.

“괜찮아, 애써 줘서 고마워. 부검이 없다면 사체에 단층촬영을 실시해 봤는데 놀랍더군. 내가 뭘 찾아냈는지 알아?” “뇌가 없어졌어. 누군가 뇌를 제거하고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도로 봉합을 해 놓은 거야.” “설마...” “정말이야.” “세상에, 가족은 그렇다치고 언론에서 김새라도 알아차리면 그 여파가 엄청날 텐데. 가족들은 부검에 절대 반대했었다구.”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⁷⁾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참여와 대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녀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앉은 자세로 액체 속에 둥둥 떠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뇌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두개골은 아예 없었다. 얼굴은 눈을 빼고는 거의 형체가 없어진 상태로 눈에는 콘택트렌즈가 덮여 있었다. 기관지에 삽입한 튜브는 목으로부터 바로 뺏어나와 있었다. 양팔은 감각신경의 말단부가 드러나도록 기술적으로 해부되어 있었으며, 신경의 말단부는 서로 거미줄처럼 엮여 뇌에 박힌 전극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틴은 천

5) 로빈 쿡(1995). 전계서. 110

6) 로빈 쿡(1995). 전계서. 118

7) 로빈 쿡(1995). 전계서. 171

천히 기둥 둘레를 한바퀴 돌았다. 견딜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덮쳐와 두다리로 버티고 서 있기가 힘들었다.⁸⁾

환자는 죽어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표 1. 소설 브레인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윤리적 행위(ethical behaviors)
병원에 오는 환자는 인격적 존중을 기대한다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나 관심 없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의료인은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료인은 환자가 절망을 느끼는 경우까지도 포용하는 인간중심의 치료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인정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성의와 인간적 접촉을 원하나 의료인은 일방적이고 소극적이다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참여와 대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거짓으로 말하거나 감추지 않고 진실되게 말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실험이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자는 죽어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진료의 정직성이 배제됨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한다 환자 중심이 아닌 의료인 중심의 방어적인 진료행위는 없어야 한다

2) 소설 메스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소설 메스에서는 “환자는 인간으로 존중될 때 비로소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 “환자는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대해지기를 원한다”, “의료인은 질병 중심의 치료가 아닌 인간 중심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등 13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표 2).

다음은 소설 메스의 윤리적 행위의 예 일부이다.

펜을 내려놓은 후, 반데르머는 청진기를 꺼내 빠르고 면밀하게 제니퍼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제니퍼의 눈과 귀를 들여다 본 뒤 가슴과 심장의 박동을 청진하고 무릎과 발목을 두들겨 보는 등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진찰을 하는 동안 반데르머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제니퍼는 자신이 아주 노련한 푸줏간 주인의 손아래 놓인 고기 덩어리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니퍼는 반데르머가 뛰어난 의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좀 더 따뜻한 태도를 원하고 있었다.⁹⁾

8) 로빈 쿡(1995). 전개서. 295-296

9) 로빈 쿡(박민 옮김). 메스. 서울 : 도서출판 열림원, 1994 : 34

환자는 의사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이지요. 낸시 구엔헤르 양이 당신의 담당 간호사가 될 겁니다.” (중략) 닥터 반데르머가 몸을 일으켜 떠날 준비를 했다. “제가 올 때마다 선생님을 뵈 수 있나요?” “대개 그렇지요. 경우에 따라 ..., 그럴 때는 제 동료의사나 낸시가 보게 되지요.” चे니퍼는 물어볼 것이 너무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삶이 반쪽으로 갈라져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닥터 반데르머는 진찰이 끝났으니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었다.¹⁰⁾

환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워 하므로 의료인은 신중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폴리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폴리 박사님은 어디 계세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선을 주고받았다. “폴리 박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술을 받지 않을 거예요.” 세릴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난 닥터 스테프슨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다. “폴리 박사님은 여기 오실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테데스크양을 맡게 되었지요. 수술은 간단한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¹¹⁾

환자는 의사가 바뀌거나 하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환자는 알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소설 코마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소설 코마에서는 “의료인은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환자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원칙이 더 중요시된다”, “병원 등의 큰 조직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환자가 입을 손실이 밝혀지지 않는 수가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의 대부분은 업무상 환자에게 인간적인 대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통계 수치로 희귀한 건수라 해도 환자 자신에게는 100%라는 생각을 중

10) 로빈 쿡(1994). 전계서. 36

11) 로빈 쿡(1994). 전계서. 103-104

표 2. 소설 메스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윤리적 행위
환자가 인간으로 존중될 때 비로소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 환자는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의료인은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인간의 삶을 수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태아는 이미 한 인간이다 인공 임신중절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태아와 모체의 건강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는 인간 생명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일방적 진료행위는 환자의 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적 요구 및 사생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이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알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료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환자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고 목적 자체로 대우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중 있고 행동한다” 등 9개의 윤리적 행위가 도출되었다(표 3).

다음은 소설 코마에 나타난 예이다.

수잔은 다시 한번 저승 같은 분위기가 감도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간호사 한 명이 책상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지만 곧 앞에 놓인 심전도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수잔은 병실 안을 둘러보면서 또다시 기계만 움직이는 분위기에 질려버렸다. 사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뻤’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기계들의 존재를 제외하면 조그만 움직임조차 없었다. 그리고 거기 낸시 그린리가 있었다. 동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그녀는 의술의 피해자이며 기술문명의 희생자였다. 수잔은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사랑을 했는지 궁금했다. 단순한 생리 불순과 가벼운 수술인 소파수술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¹²⁾

의료인은 질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어야 한다.

“전에 수술한 환자의 심장은 어디로 보낼 건지 궁금한데요?” “샌프란시스코. 내 생각에는 7만 5천 달러밖에는 못 받을 것 같더군. 조직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밖에는 맞지 않거든. 하지만 워낙 급하게 주문을 해놔서 어쩔 수가 없지.” 다른 의사가 실에 매듭을

12) 로빈 쿡(공경희 옮김), 코마, 서울 : 도서출판 열림원, 1992 : 93

지어 팽팽하게 당기면서 대답했다.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콩팥은 네 가지가 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며칠 후에 또 다른 걸 원할지도 모르구요.” 처음 의사가 말했다. “글쎸. 심장을 넘길 만한 시장을 찾을 때까지는 하고 싶지 않군.” 다른 의사가 재빨리 실의 매듭을 지으면서 덧붙였다. “문제는 달라스에 맞는 조직을 찾아내는 일이야. 네 가지 조직이 다 맞으면 1백만 달러를 내겠다는 계의가 왔거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석유 재벌인가 봐.” 그 말을 들은 의사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런 걸 찾을 가망성이 있나요?”¹³⁾

장기 이식에 대한 바른 윤리관이 채 정립되기 전에 활성화되면 비인간적인 장기 매매 현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비약적 발전은 각고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안돼. 우리는 메모리얼 병원이나 그 부속기구 같은 일류급 기관이 필요해. 그 다음으로는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진보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법률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말아야. 만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체를 이용해 해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코페르니쿠스가 법률과 교회의 교리에 무릎 꿇었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 와 있었을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네. 수잔, 자네는 이런 것을 이해할 만한 정신을 지니고 있어.”¹⁴⁾

환자는 연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 윤리적 상황의 개념화 및 범주화

여기에서는 윤리적 상황을 같은 것끼리 묶어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화된 윤리적 상황을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영역화하였다. 윤리적 행위의 개념화는 다음과 같다(표 4).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참여와 대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일방적 진료행위는 대상자의 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적 요구 및 사생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이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

13) 로빈콕(1992). 전개서. 370

14) 로빈콕(1992). 전개서. 397-398

표 3. 소설 코마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

윤리적 행위

의료인은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환자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원칙이 더 중요시된다
 병원 등의 큰 조직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환자가 입은 손실이 밝혀지지 않는 수가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의 대부분은 업무상 환자에게 인간적인 대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통계 수치로 희귀한 건수라 해도 환자 자신에게는 100%라는 생각을 종종 잊고 행동한다

환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궁금한 점도 많으나 의료인은 일상적인 일로 다루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원한다

환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는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장기 이식에 대한 바른 윤리관이 채 정립되기 전에 활성화되면 비인간적인 장기매매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등 6개의 윤리적 행위는 “알고 결정할 권리”라고 개념화하였다.

“의료인은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은 거짓으로 말하거나 감추지 않고 진실되게 말할 의무가 있다”는 “정보제공의 의무”로, “진료의 정직성이 배제됨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된다”는 “진료의 정직성”으로 개념화하였다.

“환자는 실험이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등 4개의 윤리적 행위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개념화하였다.

“환자는 죽어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로, “환자 중심이 아닌 의료인 중심의 방어적인 진료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환자중심의 치료”로 개념화하였다.

“병원에 오는 대상자는 인격적 존중을 기대한다”, “환자는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대해지기를 원한다”,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치료” 등 7개의 윤리적 행위는 “인격적 대우”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원칙을 더 중시한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대부분은 업무상 환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통계 수치로 희귀한 건수라 해도 환자 자신에게는 100%라는 생각을 종종 잊어버리고 행동한다” 등 3개는 “개인의 가치인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최대로 살리고 인정해야 한다”,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는 생명존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등 4개는 “생명존중”으로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성의와 인간적 접촉을 원하나 의료진은 일방적이고 소극적이다”는 “인간적 접촉”으로 개념화하였다. “환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궁금한 점도 많으나 의료인은 일상적인 일로 다루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원한다”는 “신중한 고려”로, “장기이식에 대한 바른 윤리관이 채 정립되기 전에 활성화되면 비인간적인 장기매매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장기매매 문제”로 개념화하였다.

다음은 이 12 가지의 개념을 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영역화하였는데(표 5), 자율

표 4. 윤리적 행위의 개념화

개념(concept)	윤리적 행위(ethical behaviors)
알고 결정할 권리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참여와 대리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일방적 진료행위는 환자의 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적 요구 및 사생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이다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료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정보 제공의 의무	의료인은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은 거짓으로 말하거나 감추지 않고 진실되게 말할 의무가 있다
진료의 정직성	진료의 정직성이 배제됨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한다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환자는 실험이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환자는 목적 자체로 대우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환자는 죽어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환자중심의 치료 (치료자 중심의 방어적 진료가 아닌)	환자중심이 아닌 의료인중심의 방어적인 진료행위는 없어야 한다
인격적 대우	병원에 오는 환자는 인격적 존중을 기대한다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나 관심 없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환자가 인간으로 존중될 때 비로소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환자는 물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대해지기를 원한다 의료인은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료인은 환자가 절망을 느끼는 경우까지도 포용하는 인간중심의 치료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인의 가치 인정	환자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원칙이 더 중요시된다 병원 등의 큰 조직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환자 개인이 입은 손실이 밝혀지지 않는 수가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의 대부분은 업무상 환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통계 수치로 회귀한 건수라 해도 환자 자신에게는 100%라는 생각을 종종 잊어버리고 행동한다

표 4. 윤리적 행위의 개념화(계속)

개념(concept)	윤리적 행위(ethical behaviors)
생명존중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최대로 살리고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삶을 수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태아는 이미 한 인간이다 인공임신중절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태아와 모체의 건강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는 생명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적 접촉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성의와 인간적 접촉을 원하나 의료진은 일방적이고 소극적이다
신중한 고려 (대상자 문제에 대한)	환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고 궁금한 점도 많으나 의료인은 일상적인 일로 다루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원한다
장기매매 문제	장기이식에 대한 바른 윤리관이 채 정립되기 전에 활성화되면 비인간적인 장기매매 현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표 5. 윤리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 개념

윤리원칙	개념
자율성존중의 원칙 (2) (Respect for Autonomy)	알고 결정할 권리 정보제공의 의무
악행금지의 원칙 (4) (Nonmaleficence)	진료의 정직성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환자중심의 치료 (치료자중심의 방어적 진료가 아닌)
선행의 원칙 (5) (Beneficence)	인격적 대우 개인의 가치 인정 생명존중 인간적 접촉 신중한 고려(대상자 문제에 대한)
정의의 원칙 (1) (Justice)	장기매매 문제

성 존중의 원칙에는 “알고 결정할 권리”, “정보제공의 의무” 두 가지였고, 악행금지의 원칙에는 “진료의 정직성”,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치료자 중심의 방어적 진료가 아닌 환자중심의 치료” 네 가지였으며, 선행의 원칙에는 “인격적 대우”, “개인의 가치 인정”, “생명존중”, “인간적 접촉”, “대상자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다섯 가지, 정의의 원칙에는 “장기매매 문제” 한 가지로 분류되었다.

고 찰

생명의료윤리에서 언급되는 윤리원칙은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된다.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과 그 하위개념으로 정직, 신의, 성실성의 규칙을 포함하기도 하며 자율성, 진실성, 선행, 악행금지, 비밀보장, 정의, 성실성 등 7개의 원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⁵⁾¹⁶⁾¹⁷⁾¹⁸⁾

본고에서는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에 따라 본 연구에 나타난 윤리적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적 행동자유 형태를 말하며 인격존중의 원리도 이에 속한다.¹⁹⁾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의료진은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윤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한 행위나 동의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여기므로 의미 있는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동의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요구한다.²⁰⁾²¹⁾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알고 결정할 권리", "정보제공의 의무"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해가 될 행동을 피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악행금지의 원칙이다. 본 연구에서 악행금지의 원칙에는 "진료의 정직성",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치료자 중심의 방어적 진료가 아닌 환자중심의 치료"의 네 가지 윤

15) Beauchamp TL &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3rd ed). Belmont, CA : Wadsworth, 1989

16) Walker R. DNR in the O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1 ; 266(17) : 2407-2411

17) Desmarasis M. The Nurse's Ethical Guide to Placebo giving. California Nurse 1988 May

18) Edge RS & Groves JR. Ethics of Health Care — A Guide for Clinical Practice(2nd ed). Boston : Delmar Publishers, 1999

19) Veatch RM & Fry ST. Case Studies in Nursing Ethics. Philadelphia : JB Lippincott, 1987

20) 의료윤리 자료집. 서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98

21) Edge RS & Groves JR(1999). 전게서

리적 개념이 해당되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악행금지의 원칙에 넣은 것은,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성 측면에서 자율성의 원칙에 넣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미 신체에 손상이 가해졌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악행금지의 원칙에 포함시켰다.

선행의 원칙은 타인의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악이 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도우라고 하므로, 악행금지의 원칙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즉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라는 요구로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로 알려져 있다. 온정적 간섭주의가 성립되자면 우선 무엇이 그 개인에게 선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근거하여 의료진은 환자를 간섭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인간의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생명을 염두에 둘 경우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한 선행의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 하겠다.²²⁾²³⁾²⁴⁾ 선행이란 일상적으로 자비로운 행위, 친절한 행위, 동정적 행위 등을 의미하며, 이타주의, 사랑, 인간적임 등도 선행의 일종으로 여겨진다.²⁵⁾ 본 연구에서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는 개념은 “인격적 대우”, “개인의 가치인정”, “생명존중”, “인간적 접촉”, “대상자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다섯 가지 개념이 포함되었다.

정의의 원칙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치료를 부여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철학에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때 그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합의를 하여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에 따라 분배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 정의롭다는 것이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원 분배를 논할 때 분배의 정의를 다룬다. 이에 따라 “장기매매 문제”의 한가지 개념을 정의의 원칙에 포함하였다.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과 같이 분석대상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에 대한 개념은 총 12개로 이를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는 “알고 선택할

22) 의료윤리 자료집

23) Edge RS & Groves JR(1999). 전게서

24) Woodward V. Caring Patient Autonomy and the Stigma of Paternalism.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8 ; 28(5) : 1046-1052

25) 의료윤리 자료집

권리”, “정보제공의 의무” 두 가지였고, 약행금지의 원칙에는 “진료의 정직성”,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치료자 중심의 방어적 진료가 아닌 환자중심의 치료” 네 가지였으며, 선행의 원칙에는 “인격적 대우”, “개인의 가치인정”, “생명존중”, “인간적 접촉”, “대상자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다섯 가지, 정의의 원칙에는 “장기매매 문제” 한 가지로 분류되었다(표 1).

본 연구에 나타난 바로는 환자들이 의료인에게 기대하는 윤리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건강과 질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정직한 진료를 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환자를 연구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죽어가는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도덕적으로 상반되는 윤리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과에 상관없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어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보호자들의 의견과 상충하여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결과를 고려하는 보편적 최대 다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언

일반소설 속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을 앞으로써 의료대상자를 이해하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로빈 쿡의 소설 외에도 소설 속에 나타난 윤리적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을 분석하여 의료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폭넓게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 2) 국내, 국외의 소설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윤리적 행위를 비교분석하여 볼 것을 제안한다.

색인어 : 생명의료윤리 · 윤리적 행위 · 내용분석

=ABSTRACT=

Study on Concepts of Ethical Behavior Expressed in the Novels of Dr. Robin Cook

KIM Yongsoon*, PARK Yonok**

The life style is changing rapidly in the present days resulting in dilemmas on ethics and values.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biomedical ethics and ethical behavior for those who engaged in medical servi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thical behaviors, and conceptualized ethical behavior in the novels of Dr. Robin Cook, *Brain*, *Mind Bend* and *Coma*, through "content analysis" (Taylor and Bogdan, 1987; Kim and Lee, 1986). After that it is categorized by 4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Beauchamp & Childress, 1989).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I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there are 2 concepts of ethical behavior as follows; rights to know and to decide, and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 2) In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there are 4 concepts of ethical behavior namely, honesty to medical service, objectives itself other than means, rights to his body and patient centered care other than defensive manner of medical suppliers.
- 3) I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here are 5 concepts of ethical behavior; treating as a person, recognizing personal values, respecting life, human touch and deep concern of patients' problem.
- 4) In the principle of justice, there are 1 concept of ethical behavior; the problem of the sale of human organs.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Ethical Behaviors, Content Analysis

* Division of Nursing Science,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 QI Team,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